



## 철저한 자율방역의식 고취와 올바른 질병관리 지침 전달

주최 (사)대한양계협회

후원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저** 멀리 북아메리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A(H1N1)가 발생해 곧이어 국내에도 감염자가 입국했다는 뉴스가 긴급하게 보도되었다. 다행히 추가 감염자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불안감을 떨쳐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해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 축산물에 대한 지식이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양계인들이 소비자들의 높은 인식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회는 질병관리에 대한 예방법과 중요성을 재인식시키고 교육과 토론을 같이 공유 할 수 있는 '전국닭질병방역순회세미

나'를 개최 하였다.

수도권을 시작해 세차레에 걸쳐 전국을 순회하는 이번 세미나는 5월 15일 충북음성의 '반석가금진료연구소', 5월 18일 전북 전주의 '삼성생명전주연수소', 제주도 '칼 호텔'에서 연 인원 650여명이 참석해 질병세미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제주도는 뉴캐슬(ND) 및 조류인플루엔자(AI)의 청정지역으로서 신종질병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본고는 세미나 기간 중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함으로써 세미나에 참여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정부 방역시책 설명(시중심)

홍기성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정부의 방역시책을 주제로 나선 홍기성 사무관은 안전하고 위생적 축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해 소비자들을 만족 시키고 주요 질병을 조기 차단해 농가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홍기성 사무관은 “능동적 사전 예찰과 상시 방역체계 운영이 질병 차단의 기본이며, 차단방역은 축산 농가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가는 현실에서 경제적 손실예방과 경쟁력을 제고 시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는 세계적으로 50개국에서 6,602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15개국에서 413명의 감염으로 256명이 사망하였음을 언급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시방역을 기본으로 기존 농가 신고에서 정부가 미리 검색해 내는 능동적 방역체계와 초동방역 능력을 강화해 신속한 처리와 조기근절을 통한 방역능력 및 선진화된 체계를 강조했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중계(부화)장 방역대책에 추백리/티푸스



및 백세미 등 난계대질병에 대한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대한양계협회와 협조해 방역정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6억원을 지원하여 난계대 질병 예방을 위한 중계장 모니터링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 2. 초동방역팀 운용 및 모니터링 감사의 의의

지경섭 팀장/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경섭 팀장은 HPAI 예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08년 이후부터는 원종계·종계 시료채취, 관상·전시용 조류 시료채취, 상설 재래시장 유통가금 시료채취 등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초동방역팀 운영을 통해 AI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사전예방차원에서 법을 제정, 훌륭히 업무를 시행해 오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뉴캐슬(ND)의 조기근절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항체역가 확인과 조기검색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장방역실태를 점검하는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초동방역팀 운영은 AI의심신고



반석가금진료연구소(수도권,경기)



삼성생명전주주연수소(중·남부)



칼호텔(제주)

후 1시간내 농장을 진입하여, 농장 500m 전방에서 하차 후 이동간 안내표지판 설치와 20m 지점에서 방역복을 입고 농장을 진입해 농장 안의 가축과 축산물 및 분뇨를 이동통제한다. 21일전부터 농장을 출입한 현황을 파악해 살처분한 후 농장 소독시 지도 및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경섭 팀장은 “양계농가에 철새도래지 방문 자체와 농장 차단방역 및 농장 출입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고 만약 산란을 저하나 급격한 폐사 등 AI감염증상이 보이면 가축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당부했다.

### 3. ND 예방대책

최강석 박사/국립수의과학검역원

양계농가들에게 피해가 많은 질병인 뉴캐슬병(ND)은 중간독 이상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병해 호흡기, 설사, 집단폐사, 심한 산란저하의 증상이 나타난다. 과거 주기적으로 대유행했으며, 단일 혈청형으로 백신에 의한 피해예방 효과가 우수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강석 박사는 “뉴캐슬(ND)은 '02년도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08년도에 다시 급증하고 있는데, 월별로는 1월에 증가하기 시작해 5월달에 발생 사례가 높다”고 전했다. 예방책으로는 뉴캐슬병(ND)은 백신 접종만으로도 피해 예방이 가능하므로 추가 접종을 해 항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중계의 경우 HI 8(log2)이상이어야 산란피해를 예방하고 난계대질병으로 큰 피해를 보지



않는 것으로 밝혔다. 이러한 뉴캐슬병(ND)은 백신접종에 의한 면역은 질병피해를 막지만 감염이나 계사오염(병원체 배출)은 막지 못하고 어린연령은 취약한 시기여서 백신만으로는 막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또한 뉴캐슬(ND)은 기계적 전파가 되며 햇빛에 30분이면 사멸되고, 농장간 공기전파는 일어나지 않는 특징이 있음을 설명했다. 대부분의 양계 질병의 전파요인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차단 방역과 농장소독이 이루어지면서 백신을 추가 접종한다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 4. 뉴모바이러스 예방대책

송창선 교수/건국대학교

송창선 건국대교수는 최근 양계농가에 산란을 저하의 피해를 주고 있는 뉴모바이러스(aMPV) 예방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감염 숙주는 칠면조와 닭이며, 호로조, 꿩, 타조, 및 오리에도 감염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예전엔 심한 콧물과 탈색란을 동반해 산란저하 소견이 약했지만 현재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질병 중 하나로 재인식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뉴모바이러스(aMPV) 감염시 폐사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심한 콧물을 동반하는 호흡기 증상 및 대장균성 복막염으로 인한 폐사를 주의해야 하고 복합감염시 폐사율이 25%이상 올라가기도 한다고 전했다. 뉴모바이러스(aMPV)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전파되며 난계대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코막힘 증상과 심한 콧물로



개구 호흡과 같은 호흡기 증상이 유발된다고 한다. 임상증상만으로 뉴모바이러스(aMPV)를 진단하는 것은 어렵고 치료법은 없으나 세균감염을 예방하거나 임상증상이 나타날 때 약물 사용은 다소 도움이 되며, 백신접종을 통한 예방이 최선이라며 전했다. 현재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서두른다면 빠른시일내에 백신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했다. 백신 중에는 뉴모바이러스(aMPV) 감염으로 인한 탈색란 및 산란저하 방지 목적으로 만든 '사독백신'이 있으며, '생독백신'은 사독백신의 기초면역과 콧물 등 호흡기 증상과 복막염으로 인한 폐사방지에 효과가 증명되었다고 설명했다.

### 5. CIAV(닭전염성빈혈증바이러스) 예방대책

**정찬이** 수의사/인터베프코리아

인터베프코리아 정찬이 수의사는 Yuasa에 의해 닭전염성빈혈증바이러스(CIAV)가 1979년 일본에서 처음 분리되어 소독제에 저항성을 보이며 국내는 1991년 최초로 분리되었다고 말했다. 질병감염시 10~24일령에 병변이 보이면서 폐사가 일어나며, 심한 빈혈증, 황색의 골수, 흉선과 F낭의 심한 위축으로 간, 신장, 비장의 탈

색이 종대로 이어져 심하면 피하출혈과 증체감소로 육계의 경우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전했다. 또한 종계는 산란 중 감염시 임상증상을 보이지 않으며, 수직전파는 혈청양성이 되면 멈추고, 특히 수평전파는 외부환경에 오랜기간 동안 생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평전파는 수직전파보다 피해가 적은데 그 이유는 저항성 발달과 모체이행항체로 방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엄격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백신접종을 강화하여 모체이행항체증가와 혈청반전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금년부터 백신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농가에 도움이 될 것이란 설명과 함께 음수 및 분무접종은 피하고 근육, 피하, 익막천자법의 주사접종을 실시해 8주령~시산4주전에 백신접종을 권장했다. 닭전염성빈혈증바이러스(CIAV)는 심각한 폐사를 동반한 피해는 없지만 산란중 수직전파시 난계대전염병의 피해가 있으므로 시산전 백신접종과 차단방역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기를 당부했다. **양계**

